

보도시점 2026. 10. 29.(목) 11:00 배포 2026. 10. 29.(목) 06:00
2026. 10. 30.(금) 조간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 1인 1표제를 반영한 성평등 마을규약 운영, 여성이장 선출활동 등 우수사례 발굴
-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다양한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한다.

농가 인구의 절반 가량은 여성(49.8%)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 비율은 11.6%(‘25.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의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의 여성 비율이 76.3%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부 마을의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1세대 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6년 8월, 농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에 표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우수사례 발굴·확산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성평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리플릿에는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현황 ▲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1인 1표’가 필요한 이유 ▲여성 이장 선출·활동 사례 등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특히,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등 마을의 자치규약을 성평등하게 개선한 사례와 제주 성평등 마을사업단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수록하여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을의 성평등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신청방법 등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농촌마을 성평등 우수사례 >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
마을규약에서 정하는 의결권을 ‘한 집에 한 표’에서 ‘한 사람당 1표’로 바꿔, 여성의 참정권 보장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제안
제주 제주시 금악리	제○조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부녀회를 주축으로,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 개정	제○조 (마을임원조직) ①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남 담양군 청춘마을, 충남 천안시 효계1리	
마을 행사 시, 성별 역할을 나누지 않고 남녀가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 참여	

농식품부는 많은 농촌 주민들이 우수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영상도 연내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이제는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홍보 리플릿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다운 (044-201-1791)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1-1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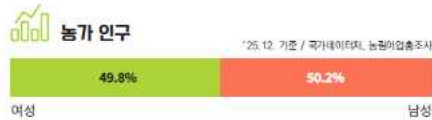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홍보 리플릿

농림축산식품부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성평등
마을에서부터!

농촌의 성평등, 숫자로 살펴볼까요?



여성농업인의 64%, 남성농업인의 56%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다**고 인식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촌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농촌의 리더는 대부분이 남성인 현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가요.”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아직도 많은 마을에서는 **이장을 뽑을 권리가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엔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마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여성과 청년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1인 1표제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마을 의사결정, 왜 모두의 몫이어야 할까요?



마을 주민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이장이나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같은 **의사결정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아요.**

마을 운영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담기면 돌봄, 복지,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귀농·귀촌인들과의 **화합과 소통**에도 좋은 **가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장 선출 및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마을의 자치규약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했어요. (2026년 8월)

우리 마을규약을 성평등하게



마을규약은 이장 선출부터 위원회 구성, 주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정하는 **우리 마을의 헌법**과도 같아요.

마을규약을 **성평등하게** 바꾸는 것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강원
정선군

2026년,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마을위원이 될 수 있고, 이장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어요.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한 집에 한 표'를 '1인 1표'로 바꾸고 마을개발위원회를 마을운영 위원회로 바꾸면서 **여성 참여 비율도 절반**으로 정했어요.

경북
의성군

오상2리, 옥정4리, 효선1리는 마을규약 목적조항에 **성평등** 가치를 담고, 운영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약을 개정했어요.

충남
천안시

도장2리는 마을규약의 목적에 **양성평등** 실현을 담고, **임원 구성을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했어요.

이제는, 여성이 함께 마을을 이끄는 시대!

이춘옥 이장

경북 의성군
생송1리

"마을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장"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이 함께 추천하고 뜻을 모아 이장을 맡게 됐어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쌓아온 신뢰가 큰 힘이 됐어요. 마을 안에서는 여성이 이장을 맡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주민들을 더 세심하게 살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조고봉 이장

강원 철원군
오덕8리

"부녀회장에서 이장으로"

부녀회장으로 오랫동안 마을 일에 참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됐어요. 이장이 된 뒤에는 경로당 정비, 분리수거장 설치, 스피커 교체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이장을 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아졌어요.

김창순 이장

충북 제천시
팔송리

"화합을 이끄는 이장"

마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원로 어르신의 권유로 2017년 이상 선거에 나갔어요. 6년째 이장을 맡아온 남성 후보와 경쟁해 투표에서 이기며, 마을 최초의 여성이장이 됐어요. 귀농·귀촌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면서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이뤘어요.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전 현직 여성이장 면접조사

다양한 마을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어요!

전남 담양군 청춘마을
복날 행사의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복날 규약'을 만들었어요



제주 제주시 금악리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약을 고쳤어요



경북 의성군 업2리
'일·돌봄·가사분담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남성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직접 요리하고
주민들과 나누었어요



충남 천안시 호계1리
주민들이 토론과 투표로
'성평등 실천 선언문'을 만들고
행사 준비 때 남녀 역할을 나누지
않는 등 일곱 가지를 약속했어요



강원 횡성군 옥계2리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성평등 교육을 받고,
'우리마을 규약 다시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성평등 마을규약, 우리 마을에도 적용해 보아요!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예시)

제○조 (목적)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
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제○조 (주민권리) 모든 주민회원은 **마을의 모든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조 (주민의무) ① 모든 주민회원은 **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를 해야 한다. ② 마을 내 인권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 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조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
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제○조 (마을임원조직) ① 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참고]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

우리 마을은 몇 개나 해당하나요?

- ☐ 이장을 뽑을 때,
세대주 한 표가 아니라 **1인당 한 표**를 행사한다.
- ☐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 ☐ 마을행사 때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것을
부녀회만 도맡지 않는다.
- ☐ 마을 일 풍실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배가지 않는다**.
- ☐ 여성, 청년, 귀농·귀촌인 등
마을 주민 누구나 회의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
- ☐ 마을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성평등 교육**을 한다.



- ✓ 4개 이상 체크했다면?
이미 우리 마을은 꽤 성평등한 마을이에요!
- ✓ 2~3개라면?
조금만 더 바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 ✓ 1개 이하라면?
더 바꿀 수 있는 항목을 함께 찾아보아요.

성평등 교육, 우리 마을로 찾아갑니다!



성평등은 저절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알아야 보이고, 보여야 바뀝니다.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
꼭 필요한 성평등 실천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 ①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누리집 접속
(www.kigepe.or.kr)
- ② [전문강사 찾기] → 교육분야 "여성평등교육",
주교육대상 "농업·농촌" 선택 후 조회
- ③ 지역강의분야 맞는 강사 확인 후 직접 연락

교육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9